

# 일제강점기 재중 조선인 소설 연구\*

- 1910년~1949년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정덕준 (한림대) · 정현숙(이화여대)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조선인 문단 형성, 소설 공간의 확대 |
| II. 이주 초기의 계몽소설, 민족의식 고취 | V. 문단 재편, 문학의 도구화        |
| III. 이주 정착의 수난사, 리얼리즘 대두 | VI. 결어                   |

## I. 서론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재중 조선인 소설의 전개 양상과 특성을 살펴보고, 그 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재중 조선인 소설이란 일제강점기 중국에 거주한 조선인 작가들에 의해 한글로 창작된 소설을 통틀어 가리킨다. 따라서 재중 조선인 소설은 중국조선족 소설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재중 조선인 소설은 당대 한국문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전개되었던 데 반해, 중국조선족 소설은 광복 이후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문학적 독자성을 형성하여 왔기 때문이다.<sup>1)</sup>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재중 조선인 문학과 중국조선족 문학에 대해서는 명칭과 개념, 범주와 시기 구분, 문학사적 의의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간도문학’<sup>2)</sup> ‘재만 한국문학’<sup>3)</sup> ‘중국조선족 문학’<sup>4)</sup> ‘중국 조선인 문학’<sup>5)</sup> ‘조선족 이민문학’<sup>6)</sup> 등 다양한 용어를 비롯하여,<sup>7)</sup> 또한 일제강점기 재중 조선인 문학을 당대 한반도 문학의 일부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문학과 분리해서 다룰 것인가, 망명문학 혹은 항일문학<sup>8)</sup>으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친일문학·국책문학<sup>9)</sup> 또는 이주문학<sup>10)</sup>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조선족은 해방 이후 중국에서 법적으로

(KRF-073-AS1017).

- 1) 정덕준·리광일, 「중국조선족 소설 연구」, 『성곡논총』 34집 상권, 2003, 1-4면 참조.
- 2) 오양호, 『한국문학과 간도』, 문예출판사, 1988, 14면.
- 3) 채훈, 『일제강점기 재만 한국문학 연구』, 깊은샘, 1990, 25면.
- 4) 조성일·권철(주편), 『중국조선족문학사』, 연변인민출판사, 1990, 7면.
- 5) 윤윤진, 「중국조선인문학연구에 나서는 몇 가지 문제」, 『문학과 예술』, 1993.6.
- 6) 장춘식, 『해방 전 조선족 이민소설 연구』, 민족출판사, 2004, 3면.
- 7) 우리 학계에서는 ‘간도’와 ‘만주’에 주목, ‘간도문학’ ‘재만 조선인문학’ ‘재만 한국문학’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중국 학계에서는 만주국이 일제의 괴뢰 정부라는 인식 아래 ‘재만’을 부정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 ‘중국조선족문학’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당시 문단에서 사용한 ‘재만조선인문학’을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 8) 이에 대해서는 오양호, 앞의 책; 민현기, 「안수길의 초기 소설과 간도 체험」, 『한국근대소설과 민족 현실』(문학과지성사, 1998); 최경호, 『실향시대의 민족문학- 안수길 연구』(형설출판사, 1994) 참조.
- 9) 이에 대해서는 채훈, 앞의 책; 이상경, 「간도체험의 정신사」(『작가연구』 2호, 새미, 1996) 참조.
- 10) 이에 대해서는 김종호, 「일제강점기 만주 유이민소설 연구」(경북대 박사학위 논문, 1995); 장춘식, 앞의 책 참조.

규정한 민족 명칭이다. 따라서 해방 이전 중국의 조선인 문학을 조선족 문학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의 문학 활동이 주로 간도 혹은 만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상해나 북경 등지에서 활동한 작가들도 많기 때문에 ‘간도 문학’이나 ‘재만 문학’으로 한정하는 것 또한 지나치게 범주를 축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중국 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해방 이전과 해방 이후가 서로 다르고, 그만큼 그들의 문학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해방 이전의 재중 조선인과 해방 이후의 중국조선족은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문화적 공동체<sup>11)</sup>라 할 수 있고, 따라서 해방 이후의 중국조선족 문학을 이전의 문학과는 다른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여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중국조선족 문학의 문학사 시기 구분과 맞물려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는데, 학자들에 따라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 동북 지역으로의 이주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학 활동을 중국조선족 문학으로 규정하고, 문학사의 시기 구분도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주 초기부터 전개되어온 중국에서의 한국문학을 총칭하여 중국조선족 문학이라 하고, 이 글의 논의 대상인 일제강점기 소설에 대해서는 재중 조선인 소설이라 규정하기로 한다.

재중 조선인 문학은 형성 자체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이주 역사의 산물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들 문학은 중국과 일본의 정치 상황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전개되어 왔으며, 시기에 따라 그 특성과 전망이 서로 다른 양상을 내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910년대부터 해방 이전까지 재중 조선인 소설을 대상으로 그 전개 양상과 시기별 특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작품의 주제적 특성과 작가의식을 분석함으로써 이 시기 소설이 추구하였던 소설적 진실과 민족문화적 지평을 밝혀

---

11) 장춘식, 앞의 책, 2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재중 조선인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를 온당하게 해명하고자 한다.

## II. 이주 초기의 계몽소설, 민족의식 고취

조선인의 중국 이주는 19세기 말엽부터 시작되지만, 한일합방을 전후한 시기에 본격화된다. 이 시기에 한반도의 조선인들, 우국지사들을 비롯하여 굶주림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대거 중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부분의 이주 조선인들은 두만강을 건너 '간도'로 통칭되는 중국 동북 지역에 들어가 황무지를 개척하여 삶의 터전을 닦는 한편, 이 지역을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삼기 시작한다. 또한 우국지사들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간도·북경·상해 등지에서 민족 계몽운동이 펼쳐진다. 『월보』(1909)를 비롯하여, 『한족신문』(1911) 『조선독립신문』(1919) 『한족신보』(1919) 『조선민보』(1919) 『애국신문』(1919) 등 수많은 신문과 잡지를 출간, 이를 통해 근대사상과 민족의식을 고취·계몽하던 민족문화선양운동이 그것이다.

초창기 재중 조선인 소설은 이런 역사·사회적인 배경 속에 형성된다. 망국의 설움을 안고 중국으로 들어간 지식인들이 창작 활동을 벌이면서 재중 조선인 소설이 태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고국의 개화기 문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이 시기 재중 조선인 소설 작품들은 아쉽게도 자료 소실로 전해지는 것이 많지 않다. 현재 전해지는 것으로는 신채호의 『꿈하늘』(1916)을 비롯하여, 백세노승의 「미인담」 「유화전」 「일목대왕의 첩퇴」 「전룡 황제의 꿈」 「일이승」, 기월(其月)의 「피눈물」(1919) 등이 있다.

신채호는 『을지문덕』(1908) 『성웅 이순신』(1908) 『최도통전』(1909) 등 여러 편의 역사전기체 소설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는 이들 작품에서 풍유적 기법으로 강한 민족의식과 자주 독립 사상을 고취, 민족문학의 지평을 열고 있다. 1907년 양계초의 『이태리 건국 삼걸전』을 번역하면서 그 취지를 “나의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는 오로지 구국적인 애국자나 영웅의 출현”에 있다고 밝힌 것처럼, 신채호의 작품들은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여 국권을 회복하려 한 주체의식을 내보이고 있다. 기월의 「피눈물」은 상해에서 창간된 『독립신문』에 그 첫 회가 게재되기 시작하여 14호까지 총 11회 연재된 소설이다. 필명으로 발표되어 아직까지 작가가 누구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작품의 내용이나 『독립신문』에 글을 발표하였던 필자들의 사상적 배경으로 미루어보아 작가는 3·1운동에 직접 참여하였다가 상해로 망명한 우국지사로 추정된다. 이 소설은 서울을 배경으로 3·1운동 이후 확산되는 항일 만세 시위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애국심에 불타는 박암·윤섭·정희 등 세 인물을 중심으로 일제의 질곡에 항거하는 민족적 거사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민족의식을 강조하고 독립투쟁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일제의 잔혹한 살상 행위를 폭로하고, 극단적인 무단 정치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항거 정신과 자주독립국가 건립에 대한 강한 열망을 표방하고 있다.<sup>12)</sup> 이러한 소설들은 민족의식과 자주독립을 강조함으로써 계몽문학의 성격과 민족문학의 특성을 잘 드러내준다.

### Ⅲ. 이주 정착의 수난사, 리얼리즘 대두

1920년대에 접어들어 이주민이 급증, 1930년 말에 이르러서는 이주 조선인 수가 60만 명에 이른다.<sup>13)</sup>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생

12) 민현기, 「일제강점기 항일독립투쟁소설 연구」, 『일제강점기 항일독립투쟁소설 선집』, 계명대 출판부, 1989. 389-391면.

활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은 상해·북경·만주 등지로 살길을 찾아 나섰지만, 그러나 이주민들이 당면한 중국의 현실은 고국 못지않게 참담할 수밖에 없었다. 1909년의 ‘간도협약’, 1915년의 ‘만몽(滿蒙) 조약’, 1925년의 ‘삼시(三矢) 협정’ 등으로 이어지는 중국과 일본의 이주 조선인에 대한 정책은 시시각각으로 이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한 것이다. ‘간도협약’ 이후 이주민들은 중국과 일본의 이중 통치를 받았는데, ‘만몽 조약’ 이후부터는 이주민의 이중 국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이주 조선인들은 무국적자로 전락한다. 또한 일제는 1920년 이른바 ‘경신(庚申) 토벌’ 이후, 동북 지방에 23개의 총영사관과 분관을 설치하고 일경(日警)들을 증파한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것은 이 지역의 이주 조선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항일 투쟁과 혁명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1925년 이후 일제의 탄압은 더욱 가혹해진다. 이주 조선인들의 참상에 분노, 국내에서 <재만동포옹호동맹>이 조직(1927)되어 재중 조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당시 이주민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잘 반증하고 있다.

한편, 이 시기 접어들어 이주 조선인 사회의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독립운동이 계급투쟁의 성격으로 전환하는 양상을 드러낸다. 이는 러시아의 10월 사회주의 혁명, 중국의 5·4운동의 영향, 당시 전파되기 시작한 마르크스주의 등의 영향에서 빚어진 결과적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훗날 이주 조선인 사회의 사상적 갈등과 분열의 동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 조선인들은 생존권 확보와 민족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한편, 교육과 문화 발전에 주력한다. 『경중보』(1924)를 비롯하여, 『신민보』(1925) 『간도일보』 『민성보』(1927) 등의 신문들이 잇달아 창간되고, 1931년까지 동북 지방에 무려 388개에 이르는 조선인 학교가 설립된 것들은 그 한 예이다.

---

13) 고승제, 『한국 이민사 연구』, 장문각, 1973, 95면.

이 시기 재중 조선인 소설은 이러한 사회·역사적인 상황과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전개되는데, 식민지 질곡에 밀려 많은 문인들이 중국으로 이주하면서 이주민들의 삶을 목격하고 직접 체험을 소설화하기 시작한다. 또한 당시 활발히 전개되던 사회주의 리얼리즘, ‘염군사’ ‘파스큐라’ ‘KAPF’ 등의 문학적 이념과 창작 방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으면서 재중 조선인 소설은 질적·양적으로 발전한다. 주요한·한설야·최서해·최상덕·김산 등은 그 대표적인 작가들인데, 이들은 자신의 중국 체험을 바탕으로 이주민들의 간고한 삶을 본격적으로 형상화하기 시작한다. 주요 작품으로는 주요한의 「인력거군」(『개벽』 4호, 1925)을 비롯, 살인(『개벽』 6호, 1925) 「영원히 사는 사람」(『신여성』 10월호, 1925) 「첫사랑 값 1」(『개벽』 9-11월호, 1925) 「첫사랑 값 2」(『조선문단』 4월호, 1927), 한설야의 「그릇된 동경」(『동아일보』 1927.2.1-10) 「합숙소의 밤」(『조선지광』 1928.1) 「인조 폭포」(『조선지광』 1928.2) 「한길」(『문예공론』 1929.6), 최서해의 「토혈」(「기아와 살육」으로 개작, 1924) 「고국」(1924) 「탈출기」(1925) 「향수」(1925) 「해돋이」(1926) 「이역 원혼」(1926) 「미치광이」(1926) 「돌아가는 날」(1926) 「홍염」(1927) 「폭풍우시대」(1928), 최상덕의 「소작인의 딸」(1926) 「유모」(1926) 「바보의 진노」(1927), 김산의 「기묘한 무기」(『신동방』 1권4호, 1930) 등이 있다. 주요섭의 「인력거군」과 「살인」은 당시 중국의 가난한 삶을 다루고 있고, 「첫사랑 값 1」<sup>14)</sup>은 작가 자신의 유학 체험을 그려 보일 뿐, 당시 이주 조선인들의 생활상은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sup>15)</sup>

14) 이 작품은 『개벽(開闢)』 1925년 9-11호에 연재되다가 『개벽』의 폐간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주요섭의 형인 주요한이 원고를 보관, 『조선문단』이 계간(繼刊)되자 전 3회 연재분의 ‘大略’과 함께 1927년 3-4호에 연재했는데, 여기서도 마지막 회는 끝내 연재를 하지 못했다.

15) 주요한은 1920년 중국으로 건너가 소주 안성 중학부 3학년에 편입한 후, 1923년에 상해 호강대학에 입학하고, 1934년 북경 보인(輔仁)대학 교수 취

이에 반해, 최서해는 다양한 시각에서 이주민의 삶을 집중적으로 소설화하고 있다. 극도의 궁핍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주민들의 실상, 현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사업과 직접적인 무장항일투쟁 등을 다룬 작품들이 그러하다. 「이역원혼」은 중국인 지주에게 정조를 유린당하지 않으려다가 이역에서 원혼이 되는 여인의 비극을, 「기아와 살육」은 극도의 가난과 병에 시달리는 가족을 지켜보는 한 가정의 고통과 절망을, 「홍염」은 중국인 지주의 횡포에 대한 조선인 소작농의 분노와 저항을 그리고 있다. 「홍염」의 문서방은 빗 때문에 중국인 은가에게 딸을 빼앗기고, 죽어가는 아내에게 딸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애걸하지만 결국 거절당한다. 그리고 아내가 죽자, 지주 집에 불을 지르고 지주를 살해하고 딸을 찾아 나온다. 「탈출기」의 ‘나’는 ‘배불리 먹고 초가를 지어 무지한 농민들을 가르쳐 이상촌’을 건설할 희망을 안고 가족을 이끌고 간도로 왔지만, 간도는 희망의 새 땅이 아니라 굴뚝질을 주어먹을 수밖에 없는 궁핍한 현실임을 목격한다. ‘나’는 마침내 절대적인 빈곤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XX단에 가입하는데, 여기서 작가는 이주 조선인의 궁핍한 삶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의 문제임을 내보인다. 「폭풍우 시대」는 『동아일보』에 연재하다가 8회(1928.4.4-12)만에 중단된 작품으로,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소설은 북만주 소사허라는 이주민 자치공동체와 민족교육 사업에 헌신하는 ‘조병구’ 일가를 중심으로 이주민들이 처한 현실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

임, 1943년 일본의 대륙 침략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방 명령을 받아 귀국하기까지 20년이 넘도록 중국에 체류하였다. 주요소설 중 중국과 관련된 것은 모두 10여 편으로, 소설의 현재적 시점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무대가 중국인 작품은 6편이다. 이 중에서 「살인」 「인력거군」 「영원히 사는 사람」 「진화」(1927) 등 4편은 주인공이 중국인이며, 「첫 사랑 값」 「봉천역 식당」(1937)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인이다. 「대서」(1935) 「잡초」(1958) 「이십오년」(1960) 「세 죽음」(1965) 등은 모두 소설의 공간이 조선이고, 「대서」를 제외하고는 주요 인물들이 모두 중국에 거주한 적이 있는 인물들이다.

제시한다. 3·1운동에 참여했던 나와 장일선·이백천은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치려고 북만주로 건너오는데, 그곳에서 조병구를 만나 교육 사업에 동참하게 된다. 소설은 ‘나’가 후원금을 모금하러 갔다가 눈보라를 받으며 돌아오는 것으로 중단되었다. 「해돋이」는 항일 무장투쟁을 구체적으로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만수’는 3·1 운동 이후 가혹해지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어머니와 함께 간도로 이주하지만, 그러나 간도는 그가 동경했던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고국에서와 다름없이 가난과 인권 유린에 시달리는 비참한 현실임을 확인한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단에 투신하고, 그의 어머니는 손녀를 데리고 고향으로 되돌아간다. 이처럼, 최서해 소설은 이주 조선인의 참담한 삶, 이주민으로서 도저히 정착할 수 없는 간도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면서, 방화·살인·도주·귀향 등의 소설 결말을 통해 정착에 실패한 이주민들의 생존을 문제 삼고 있다.

한설야의 소설도 절대 빈곤 속에서 고통 받던 이주민들이 서서히 계급의식을 자각하고 저항 의지를 다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의 소설은 살인이나 방화 등의 극한적인 해결 방식이 아니라, 현실을 객관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내 보인다는 점에서 최서해 소설과는 다른 특성을 드러낸다. 「그릇된 동경」<sup>16)</sup>은 일본인 Y와 결혼한 ‘나’가 파경을 맞으면서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는다는 내용이다. ‘나’는 상해에 정치범으로 수감되어 있는 오빠 때문에 Y와 결별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이러한 결별의 동기를 통해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민족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인조폭포」는 이주 조선인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노동자 의식과 노동운동을 강조한 단편이다. 이 작품의 표제 ‘인조 폭포’는 조선에서는 살 수가 없어 폭포처럼 만주로 몰려드는 땅을 빼앗긴 농민들을 상징한다.<sup>17)</sup> 이 작품은 만주로 이주한 농

16) 한설야가 만주에서 귀국한 직후 김덕혜라는 필명으로 『동아일보』 현상모집에 2등으로 당선된 소설이다.

민들이 농사만으로 생계를 잇기가 어려워 농한기에는 광산이나 공사판의 노동자가 되고, 여성들은 유곽으로 팔려가는 현실, 조선인 노동자를 만나 위안을 얻고 계급적 각성을 해나가는 과정이 잘 그려져 있다. 「합숙소의 밤」은 공장과 탄광으로 전전하는 이주 조선인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계급의식도 자각하지 못하는 이주민들의 ‘무지’를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는 계급투쟁의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 작가의 의식에서 연유한다. 요컨대, 이 시기의 한설야 소설은 가난한 소작농에서 다시 뜨내기 노동자로 전락하는 이주민의 실상과 계급의식을 자각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한설야에게 있어서 중국 체험은 사회과학적 지식을 작가적 이데올로기로 변환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김산의 「기묘한 무기」(『신동방』 1권4호, 1930)는 중국을 혁명의 무대로 활약하는 인물들을 그린 작품으로, 한일합병 이후 리군·김익상·오성륜 등 세 명의 청년들이 상해로 와서 의혈단을 결성하여 일본인을 암살하는 내용을 통해 일제에 대한 저항의지와 반일 투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시기 이주 조선인 작가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이주민들이 직면한 생존 조건과 냉혹한 현실, 즉 당시 중국도 고국과 별반 차이가 없는 궁핍의 땅이라는 사실이다. 가족을 인질로 빚을 얻어 토지며 집과 식량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었다. 이 때문에 이주민들은 농사는 물론 소금 밀매며 중노동도 마다하지 않고 온갖 험한 일을 도맡아 하지만 그러나 고리 빚을 갚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주 조선인들은 중국에서도 하층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주민들은 한족 지주 밑에서 평생 소작인으로 살거나, 동족을 등

17) 서경석, 『한설야-정치적 죽음과 문학적 삶』, 건국대 출판부, 1996, 68면.

18) 장석홍, 『한설야 소설연구』, 박이정, 1997, 34-35면.

쳐먹는 ‘열되놈’이 되거나, 농사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탄광이나 공사판의 노동자로 전전하거나, 여성의 경우에는 ‘몸으로 살아가는 거리의 여인’이 되어 온갖 수모를 겪으며 근근득생(僅僅得生) 목숨을 이어나가야 했다. 다시 말하여, 이주 조선인들은 중국 관헌과 지주들의 횡포, 중국 농민들과의 갈등, 한족을 등에 업고 동족을 배반하는 이주민의 파렴치한 행위, 마적단들의 폭력 등 극한 상황을 겪어내야만 했던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시기의 재중 조선인 소설은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이주민이 처해 있던 간고한 현실을 해석하여 리얼리즘의 기법으로 소설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 소설의 특성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이 시기 소설은 정착에 실패한 이주 농민들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내보이고, 이주민들이 이국땅에서 겪는 수난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 삶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체제에서 연유하는 것임을 증언한다. 부정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인물들을 형상화, 이를 통해 이주민이 당면한 현실과 역사·사회적 상황에 대한 응전방식을 제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것은 이주 조선인이 처해 있던 현실을 직시, 그 구조적인 모순을 객관적으로 인식한 작가의식의 소산에 다름 아니라 하겠는데, 이 시기 조선인 소설의 주제의식과 문학적 성과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IV. 조선인 문단 형성, 소설 공간의 확대

1930년대 이후 이주 조선인 사회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만주국 건국 이전까지의 이주민은 소작농 이하의 궁핍한 농민이 주를 이루었던 데 반해,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일제의 토지 수탈 때문에 자작농들마저 이주민 대열에 나서게 되고, 언론

과 결사의 자유를 찾아 지식인과 문인들도 상당수 이주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일제가 이른바 ‘개척 이민’을 표방하며 강제 이주를 단행하면서 이주민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 1933년에서 1936년까지 3년 동안에 이주민 수가 67만4천 명에서 88만8천 명 이상으로 급증한다.<sup>19)</sup>

한편, 1931년 만주사변과 1932년 만주국 건국은 이주 조선인들에게 새로운 생존 방식을 강요한다. 만주국 초기, 일제가 내세운 이른바 ‘오족 협화’라는 것은 그들이 만주에서의 정치·경제적 특권을 확고히 하고 식민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내세운 책략에 다름 아니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벌어지자, 일제와 만주국은 전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증산증식운동·유축농업장려·금연 등을 국책 사업으로 전개, 이주민에 대한 탄압이 그만큼 더 가혹해진 것은 ‘오족 협화’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좋은 예이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만주국 정부와 중국 관헌, 원주민과 마적단 등의 이주민에 대한 수탈도 더욱 악랄해지고, 일제와 만주국의 탄압과 수탈이 날로 극심해짐에 따라 계급의식에 경도되어 공산주의 혁명 투쟁에 나서는 이주 농민들이 속출한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와는 달리 민족주의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주 조선인의 항일 투쟁 노선도 중국 공산당을 추종하는 조선의용군과 민족 진영의 영향 아래 투쟁하는 광복군으로 분열되고, 이주 조선인 사회 내부에서도 상호 반목과 갈등이 증폭된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 일제와 중국은 이주 조선인을 위협한 공산분자로 매도하면서 감시와 탄압의 구실로 악용하기도 하고, 또한 회유와 밀고 등 조선인 사회의 분열상도 심각해지면서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한편, 이념 투쟁에 대한 회의와 전망 부재의 암울한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아편중독자와 범법자들이 급증하는 등 이주민 사회의 타락과 혼란상이 심각해진다.

---

19) 고승제, 앞의 책, 95면.

이러한 암울한 정치·사회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재중 조선인 문학은 본격적으로 문단을 형성하면서 활발하게 전개된다. 문학 동인회 <북향회> 결성을 비롯하여, 동인지 『북향』 창간,<sup>20)</sup> 『만선일보』 창간 등으로 다양한 발표 지면과 작품 활동의 기회가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강제 폐간하고, 『인문평론』을 『국민문학』으로 개칭하는 등 일제의 억압과 검열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의 많은 문인들은 창작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만주로 이주하여 『만선일보』를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벌이게 되고, 이에 힘입어 재중 조선인 문단은 더욱 활발해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만선일보』는 1932년 만주국 건국 이후, 신경(지금의 장춘)의 『만몽일보』와 용정의 『간도일보』를 통합하여 1937년에 창간한 일종의 만주국 기관지로서, 만주국의 건국 이념과 국책 사업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만선일보』는 고액의 상금을 내걸고,<sup>21)</sup> 정기적으로 ①협화 미담 현상모집 ②금연 문예작품 대현상모집 ③군가 모집 ④개척가사 현상모집 등 국책 관련 글을 모집한다. 따라서 『만선일보』가 당시 재중 조선인 작가들의 유일한 작품 발표 무대였으며, 이 신문

20) 『북향』의 창간호는 1936년 4월(35년 1월)에 발간되었는데, 이주복의 「파천당」, 김국진의 「설날」, 안수길의 「장날」, 천청송의 소설과 강경애·박영준의 수필, 엄무현의 평론이 실렸다. 4호까지 간행된 이 잡지에 26명의 작가들이 기고하였는데, 박영준·안수길·강경애·박계주·박화성 등 당시 고국의 문단에서 활약하던 기성문인들이다. 이학인의 「인간동지」(1호-2호), 「노선생」(4호), 김정혁의 「철인간」(1호), 김유훈의 「반역심」(2호), 김국진의 「설」(3호), 안수길의 「장」(3호) 「함지쟁이 영감」(4호), 장초경의 「약수」(3호), 전희곤의 「니취」(4호) 등의 작품이 있다.

21) 『만선일보』 상금을 보면, 금연소설은 1등에 3백 원, 군가 가사 1편에 2백 원, 개척가사 입선작 한 편에 3백 원이었다. 이것은 당시 『동아일보』의 신춘 문예 당선작 상금이 단편소설 50원, 시 5원, 동요 5원, 시나리오가 50원, 신시와 한시 5원, 동화 10원, 동요 5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보면 상금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오양호, 『일제강점기 만주조선인문학 연구』, 문예출판사, 1996, 142-143면 참조).

을 중심으로 망명 문단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자체가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김형준·김창걸·홍룡택 등은 이 신문의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고, 『만선일보』 지면을 통해 작품 활동을 벌인 작가들은 안수길·박영준·현경준·신서야·황건·김진수·이순보·김현숙·김귀·박영성·이서경·한찬숙·진광학·윤도혁·조준철·천청송·조학래·심연수 등 20여 명에 이른다.

특히 『만선일보』는 현경준의 『선구시대』(?-1939.12.1) 『돌아오는 인생』(1941-1942.3.3)를 비롯, 박영준의 『쌍영』(1939.12-?), 염상섭의 『개동』(?), 안수길의 『북향보』(1944.12.1-1945.?) 등의 장편소설 작품들을 연재하는 한편, 재만 조선인 작품집 『싹트는 대지』(<만선일보사, 1941)를 발간<sup>22)</sup>, 재중 조선인 문단을 주도해나간다. 한편, 주로 상해에서 창작 활동을 한 김광주는 문학 동인들과 함께 『보헤미안』이라는 잡지를 발간, 재중 조선인 문단의 활동 영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 시기의 재중 조선인 소설은 다양한 이주민들의 삶의 양태에 주목, 이주 조선인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꿰뚫어 담는다. 이념적인 각성과 함께 적극적인 항일 투쟁에 투신하거나, 초기 이주민들의 간고한 수난사를 바탕으로 강한 정착 의지를 표명하거나, 전망 부재의 절망감 속에서 현실 도피적인 타락상을 드러내는 것들이 그러한데, 이를 살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계급적 각성, 반만(反滿)·항일 투쟁

만주국 건국 이후 일제가 내세운 이른바 ‘오족 협화’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민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책략에 불과했다. 이를 기화로, 일제는 이주 조선인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

22) 염상섭이 서문을 쓴 이 창작집에는 김창걸의 「암야」, 박영준의 「밀림의 여인」, 신서야의 「추석」, 안수길의 「새벽」, 한찬숙의 「초원」, 현경준의 「유맹」, 황건의 「제화」등 7편이 수록되어 있다.

화하는 한편, 만주를 발판 삼아 중국 침략을 가속화한다. 이에 따라 이주민들이 당하는 수난과 비극은 날로 심각해지고, 반만(反滿)·항일 무장 투쟁이 더욱 격렬해진다. 재중 조선인 사회 공산주의자들의 무장 투쟁은 1930년 간도의 '5·30 사건'을 정점으로 끊임없이 전개되는데, 1931년 8월까지 일제의 간도 총영사관에 검거된 조선인 공산주의자가 2천여 명에 이르고, 이중 350여 명이 유죄 확정을 받았을 만큼 극렬하였다. 이 때문에 재중 조선인의 항일 운동은 이념적 대립으로 반목과 갈등이 첨예해지고, 마침내 좌·우익으로 분열되면서 이주 조선인 사회의 불행의 골도 깊어간다.

이 시기 소설은 갖은 노력으로 황무지를 개간하여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지만, 지주와 자본가의 가혹한 수탈 때문에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서서히 이념적 각성을 통해 계급의식이 싹트고, 마침내 조선의용군에 입대하여 항일무장 투쟁에 투신하는 이주 조선인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강경애의 『소금』(『신가정』, 1934.5-10)을 비롯하여 「채진」(『신가정』, 1933.9) 「축구전」(『신가정』, 1933.12) 「유무」(『신가정』, 1934.2) 「모자」(『개벽』, 1935.1) 「어둠」(『여성』, 1937.1-2), 현경준의 「사생첩」(『광업조선』, 1938.6) 「밀수」(『비판』, 1938.7), 김창걸의 「두번째 고향」(1938) 등은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강경애의 「모자」 『소금』은 이주민 여인이 처절한 비극을 경험하면서 계급의식에 눈을 뜨는 과정을 담은 작품들이다. 「모자」는 만주 사변 직후를 배경으로 '승호' 어머니가 남편을 잃은 후, 갖은 수난을 겪으면서 남편의 이념에 동조하여 자신도 투쟁의 길로 나서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려 보이고 있다. 항일 전사인 남편 때문에 살 길이 막막해진 '승호' 어머니는 남의 집 어머님으로 들어가 어렵게 생계를 이어간다. '승호'가 백일해에 걸리자 주인 집에서 쫓겨난 '승호' 어머니는 계급적인 한계 상황을 절감하면서 남편이 걸은 투쟁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한다. 『소금』은 '봉

식'이네 가족의 비극을 통해 간도 이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궁핍과 이념적인 갈등을 그리고 있다. '봉식'이네 가족은 고향에서 빛을 지고 간도로 쫓겨와 '광등'(중국인 지주) 밑에서 소작을 하며 겨우 목숨을 이어간다. '봉식'이 아버지가 광등과 함께 자위단의 비위를 맞추다가 공산당에게 살해당하자, '봉식'이는 가출하고, '봉식'이 어머니는 광등에게 겁탈당하고 임신까지 한다. 그러나 그녀는 '봉식'이가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사형되었다는 구실로 광등에게 쫓겨나 어린 딸과 함께 유리걸식하다가 이사 직전에 빠지는데, 옛날 이웃이었던 '용애'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고 유모살이를 시작한다. 그러나 열병으로 두 딸이 죽자, 유모자리에서도 쫓겨난다. 그녀는 이러한 혹독한 고난이 공산당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치를 떠는데, 그러나 소금 밀수에 나섰다가 만난 공산당의 연설을 듣고 이념적 각성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여, 『소금』은 당시 일제가 항일유격대를 공비라고 끊임없이 세뇌하면서 무고한 이주민들까지 사살하고, 무지한 이주민들이 이념적 갈등에 휩싸이는 비참한 현실을 문제 삼고 있다. 김창걸의 「두번째 고향」도 주인공 '경철'이가 살길을 찾아 만주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슬픈 사연, 정착 과정에서 당하는 모진 시련, 망국민의 설움과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배워서 용감한 항일투사로 성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 정착에의 의지, 이주민 공동체 건설

일제강점기 재중 조선인 사회, 만주 지역의 이주 조선인들은 만주에 거주하던 5개 민족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한족이나 만족 등의 다른 민족들은 그들을 대변하는 정부나 독자 세력이 배후에 있었지만, 이주 조선인들에게는 그들의 권익을 보장해줄 정부는 물론 신변을 보호해줄 어떤 기관도 없었다. 일제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관헌과 지주들의 횡포, 중국 농민들과의 갈등, 일제와 중국인들을 등에 업고 동족을 배반하는

이주민들의 과립치한 작태, 마적단들의 폭력 등이 난무하는 극한적 상황 속에서 술한 역경과 참상을 스스로 감내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주 조선인들에게는 돌아갈 땅도 받아줄 고국도 없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정착이란 절실한 생존 수단이었으며, 정착에의 의지와 집념 또한 그만큼 강렬할 수밖에 없었다.

이주 조선인들이 처한 이러한 현실은 이 시기 소설의 또 다른 공간을 이룬다.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굳은 의지와 희망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간도에 뿌리를 내리는 이주민들의 시대상을 반영한 소설들이 그것이다. 이들 작품은 이주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겪은 수난사를 바탕으로 정착민으로서 살아가려는 굳은 의지를 담고 있다. 만주라는 낯선 기후와 풍토, 언어와 관습에 적응하지 못하던 이주민들, 일제와 중국인뿐만 아니라 동족들에게까지 착취와 폭행을 당하면서 오직 생존하기 위하여 고국에서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살아온 이주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안수길의 『북향보』(『만선일보』 1944.12.1-1945.4)를 비롯하여 「새벽」(원제 「호가네지광」, 『만선일보』 1941.2.1-3.1) 「벼」(『만선일보』 1940.11.16-12.25) 「원각촌」(『국민문학』, 1942.2) 「목축기」(『춘추』, 1942), 김창걸의 「무빈골 전설」(1936) 「수난의 한토막」(「소표」로 개제, 1937) 「암야」(원제 「지새는 밤」, 1939, 만선일보사, 1941) 「낙제」(『만선일보』 1940.5.6-7) 「전형」(일명 「개아들」, 1943.) 「강교장」(1942), 현경준의 『서구시대』(『만선일보』 1939.5.12-12.1)<sup>23)</sup>, 「사생첩 제삼장」(『문장』 1941), 신서야의 「추석」(1940), 김진수의 「이민의 아들」(1940), 김광주의 「밤이 깊어갈 때」(1934) 「파혼」(1934) 「북평서 온 영감」(1936), 박계주의 『애로역정(愛路歷程)』<sup>24)</sup>(매일

23) 이 작품은 『만선일보』에 1939년 5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연재된 장편소설이다. 안수길의 『북향보』보다 5년이나 앞서 초기 이주들의 수난사와 정착의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인데, 현재는 마지막 195회 연재분만 확인할 수 있다.

24) 이 소설은 북간도에 있는 어머니와 재만 조선 동포에게 바친다는 헌사가 제

신보사, 1943) 「처녀지」(1941) 「사형수」(1942) 「육표(肉票)」(1943) 「어머니」(원제 「유방」)(1943) 「딸따리 족」(「무명지사의 최후」로 개제, 1943) 등은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들 소설은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한편, 이러한 시련을 바탕으로 민족공동체 건설과 2세 교육 등에 전력하는 이주민 사회의 굳은 의지도 아울러 형상화하고 있다.

안수길의 「새벽」(원제 「호가네 지팡」)은 ‘창복’이네 가족의 비극을 통해 초기 이주민들의 수난사를 증언하고 있다. ‘창복’이네 가족이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두만강을 넘어와 중국인 호가의 소작인이 되는 과정, 정착하기 위해 딸을 볼모로 빚을 지고 그 빚 때문에 딸을 소실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누이의 자살과 어머니의 광분, 아버지의 난투극 등을 중심으로 초기 이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비참한 생존 조건을 내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감시와 통제, 마적과 장작팀 군대의 습격 등 끊임없는 외부의 폭력에 시달림을 받던 이주민들의 생활상도 폭넓게 서술하고 있다. 「벼」는 1929년 여름을 배경으로,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이주민 집단부락의 수난사와 정착 의지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담아내는 한편, 수전(논) 농사의 주역으로서 이주민들의 위상에 대하여 역설하고 있다. 「벼」는 전장(前章)과 후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장에서는 박침지·홍덕호 등이 만주에 이주하여 황무지를 개간하여 논농사를 지으면서 ‘매봉둔’에 정착 마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후장은 학교 설립이 실패로 돌아가고 중국 당국과 원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생활 터전마저 잃게 되는 시련을 서술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1930년을 전후하여 중국은 러시아의 영토 침입을 막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현실적인 이해에 따라 조선인들의 이주를 정책적으로 권장하는데, 이에 따라 조선인의 간도 이주 또한 급격히 증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은 이주민들의

---

일 앞장에 기록되어 있다.

집단화·세력화를 경계하고 이주 조선인 사회를 감시한다. 이 때문에 중국인 지주들이 논농사 때문에 이주민들을 호의적으로 대했던 데 반하여, 중국 관리들과 원주민들은 이주 조선인들을 배척했는데, 「벼」는 이와 같은 중국의 이중적 태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지주 방치원의 이주민들에 대한 배려, 이주민과 원주민들의 목숨을 건 대립, 소 현장의 탄압 등이 그것이다.

김창결의 「무빈골 전설」은 지주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주민 ‘문서방’이 원혼이 되어 원수를 갚는다는 이야기로, 이주 가족이 겪어야 했던 수난과 애환을 그리고 있고, 「강교장」은 만주국 건립 후 일제 식민지 정책으로 우리 민족 학교가 폐쇄되는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김진수의 「이민의 아들」은 농촌의 공핍과 이주민들의 간고했던 정착 과정,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등을 담고 있는데, 이주 조선인이 처한 현실과 전망을 푼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신서야의 「추석」은 자신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을 박탈당한 채 곡식을 그대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주민의 억울한 사정을 통해 양곡 출하법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이 밖에, 박계주의 「치녀지」는 만주로 이주한 후 살아남기 위해 산속 움막에서 원시인처럼 생활하는 이민 가족이 철도 부설로 그것마저 잃게 되는 참담함을 그리고 있다.

『북향보』는 만주국 건국 이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 이주 조선인 사회의 전망과 정착 의지를 폭넓게 담고 있는, 이 시기 이주 조선인 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만주국 건국 초기 이주 조선인은 ‘협화 정신’에 따라 표면상으로 다른 민족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 그것이 비록 근본적으로 위선적 정책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에게 있어 만주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절박한 투쟁의 공간이 아니라, 제2의 고향으로 삼아 ‘백년대계를 꿈꾸며’ 정착하여야 할 공간으로 재인식된다. 이주민들은 생존 그 자체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불쌍한 소작농’에서 벗어나, 주권을 지닌 주체들

로서 만주에 거주하게 된 것이다. 『북향보』는 이러한 역사·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정학도’·‘오찬구’ 등 선각자들이 ‘북향 도장’과 ‘북향 목장’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주민 공동체를 확립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향보』는 ‘오족 협화’를 내세우는 만주국 건국이념과 민족 단위의 독립적 자존에 대한 의지가 상충하는 지점에 놓인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만주국 정책에 대한 순응과 이주민의 생존 전략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세계가 혼재하고 있다고 하겠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것은 안수길의 현실인식에 다름 아니고, 동시에 당시 이주민들이 처했던 실상에 대한 정직한 반영이기도 하다.<sup>25)</sup>

### 3. 전망 부재 타락한 사회상

재중 조선인 소설의 또 다른 양상은 이주민 사회의 병리 현상을 문제 삼고, 이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이 시기 이주민 사회는 전망 부재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절망감, 이념 투쟁에 대한 한계와 회의, 정착 이후 날로 심화되는 빈부 격차, 지역·세대간의 대립 갈등 등으로 각양의 병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이념 투쟁의 한계에 직면한 혁명가들은 정신적 공황 상태 속에서 마약 중독에 빠져 자기 파멸에 이르게 되고, 유랑하는 이주민들이 급증하면서 밀수밀매·매춘 등의 범죄 행위가 횡행하는 현실이 그것이다. 현경준의 「유맹」(『광업조선』, 1939.3/『인문평론』, 1940.7-8) 「사생첩 제삼장」 「길」(1941), 최명익의 「심문」(1939) 「장삼이사」(1941), 김창걸의 「청궁」, 황건의 「제화」(『짜트는 대지』, 1941) 「숨결」(1940), 강경애의 「번뇌」 「마약」(『여성』, 1937), 김광주의 「애지」 「상해와 그 여자」(1932), 남경

25) 이 시기에는 국책에 따라 많은 문인들이 만주를 방문, 그 체험을 바탕으로 만주 이주민들의 삶과 정착의지를 형상화한 소설들을 다수 발표한다.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 『처녀지』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재중 조선인 소설의 범주에 넣을 수 없어 논의에서 배제한다.

로의 「창공」(1935), 김진국의 「설」(『북향』3호), 박영준의 「중독자」(1935) 「무화지」(1939), 박계주의 「모토」(1943) 등은 이와 같은 이주 조선인 사회의 혼란과 타락한 사회상을 다룬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현경준의 「유맹」은 만주국 갱생보도소를 배경으로 그곳의 수감자들, 과거에는 정치운동가·예술가·종교인·의사·교육자 등으로 활동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마약중독자·범죄자로 전락한 사람들의 실상을 다룬 소설이다. 「유맹」은 작가가 만주국 금연총국의 위탁을 받고 집필한 작품으로, 당시 만주국의 국책 사업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구금과 교화의 대상으로 전락한 당시 이주민들의 암담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하여 이주민들의 타락상을 고발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명익의 「심문」도 한때 좌익이론가로 명성을 떨쳤던 사회주의자가 마약 중독에 빠져 스스로 과멸해가는 모습을 보고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김창걸의 「청공」은 ‘강씨’라는 전직 교사가 돈을 벌기 위해 아편 밀매에 나섰다가 본인과 부인까지 아편중독자로 전락하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경애의 「마약」은 마약을 얻기 위해 자기 아내마저 중국인에게 팔아넘기는 주인공을 통해 이주 조선인 사회의 도덕적 파탄과 타락상을 해부한 단편이다. 박계주의 「모토(母土)」도 주인공 ‘인준’이를 중심으로 일제의 이주 정책에 속아 만주로 들어온 이주민들이 도시 막벌이꾼과 식당 심부름꾼으로 전전하다가 아편중독자가 되는 과정, 그리고 아편을 얻기 위해 구걸·절도는 물론 자신을 구해준 은인까지 배반하는 등 인격적 파탄에 이르는 현장을 그리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결말 부분에서 어머니의 땅, 즉 조국의 흙 냄새를 맡으며 웃음을 띠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이주 조선인들의 아편 중독은 조국 상실에서 연유하는 것임을 내비친다.

김광주의 「애지」는 중국 군인에게 강간당하고, 외삼촌에 의해 이

른바 ‘갈보’로 팔려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애지’(쟁이라는 뜻으로 갈보의 별칭)로서 온갖 수모를 다 겪게 되는 ‘갈보’ 여성의 비극적인 삶을 그린 작품으로, 1930-40년대 이주 조선인 사회의 타락상을 극명하게 제시한다. 강경애의 「번뇌」는 세대 변화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부도덕한 사랑에 집착하는 이념 활동가의 번민을 통해 전망 부재의 이주민 사회를 비판적으로 내보인 작품이고, 황건의 「제화」는 만주국 건국 후 자괴감에 빠진 한 지식인 청년의 내면세계를 통해 이주민 사회의 무력감과 패배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밖에, 김진국의 「설」은 일감을 찾지 못하자 오직 화투놀이에 몰두하는 주인공의 절망적 일상과 이 때문에 가중되는 가족들이 불행을 다룬 작품이고, 남경로의 「창공」(1935)은 사이비 망명지사의 타락상을 극명하게 폭로한 소설이다. 이들 소설은 내일을 도모할 수 없는 절망적 현실 속에서 아편·술·마작·매춘·인신 매매 등 부도덕한 일상에 빠져 있는 타락한 군상들을 드러내고 있다.<sup>26)</sup>

앞에서 본 대로, 이 시기의 소설들은 초기 이주민들이 겪는 갖가지 수난과 역경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의지, 그리고 만주에 삶의 뿌리를 내리려는 강한 정착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많은 작가들이 초기 이주민들의 척박한 이민사를 문체 삼으면서 비극적인 이주·정착사에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만주를 제2의 고향으로 삼아 정착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인식과 시대적인 당위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자면, 이주민의 수난의 역사를 다룬 재중 조선인 소설은 초기 이주민

26) 이 밖에 체제 순응과 이기적인 세대 등 이주 조선인들의 다양한 삶의 양태를 반영한 작품으로는 김창걸의 「거울」(1940) 「마리아」(1940) 「천사와 요술」(1940) 「소고기」(1940) 「어머니의 반생」(『만선일보』, 1940.7.14-16), 이순보의 「십전짜리 두둑」(1940), 이경로의 「순산」(1940), 박영서의 「아씨」(1940), 안수길의 「목축기」(1943) 「장」(『북향』, 1936.3) 「차중에서」(『만선일보』, 1940.7.31-8.2) 「토성」(『북원』, 간도 예문당, 1944), 박영준의 「밀림의 여인」(1941), 현경준의 「격량」(1935) 「별」(1937) 「오마리」(1939), 주요섭의 「봉천역 식당」(1936) 등이 있다.

들이 갖가지 수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삶의 뿌리를 내리고, 만주국 건국 이후 이른바 ‘협화 정신’과 민족자존이라는 이중적 생존 논리로 대응하며 정착해가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 소설은 조선인의 생생한 이주사이며,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에 대한 정직한 보고서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 V. 문단 재편, 문학의 도구화

1945년 해방 이후 재중 조선인 사회는 새로운 정치·사회적 환경을 맞이하게 되고, 이주 조선인들은 고국으로의 귀국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진다. 이주 초기 두만강을 건너 간도로 넘어와 술한 역경을 극복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한 이주 농민들, 그리고 조선의용군 계열의 항일 투사들은 특히 그러했는데, 해방 직전 2백여 만 명에 이르던 이주민들 가운데 절반이 조국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절반은 중국을 선택한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귀국을 포기하고 중국에 남은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주의 국가 건립을 환영하는 조선의용군 계열이거나, 자신이 개간한 땅을 목숨처럼 소중히 가꾸은 농민들이고, 이들을 중심으로 재중 조선인 사회가 재편된다.

재중 조선인 문단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해방 전까지 재중 조선인 문단의 중심지는 용정과 신경(장춘)이었다. 용정은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강경애·안수길 등 문인들이 작품 활동을 하고, 동인지 『북향』과 『민성보』 『간도일보』가 발간되던 곳이다. 또한 신경은 『만선일보』가 간행되던 곳으로, 이 신문을 중심으로 염상섭·박팔양·안수길·황건·현경준·신영철 등 많은 문인들이 활동함으로써 명실공히 재중 조선인 문단의 중심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이들 대부분은 귀국한다. 정치적 입장이나 심미적 관

점 또는 가치관의 차이 탓이겠지만, 염상섭·안수길 등은 한국으로 귀국하고, 현경준 등은 북한을 선택한다. 수많은 문인들의 귀국에 따라 조선족 소설문단은 거의 공백 상태와 다름없게 된다. 이때 중국에 남은 문인 가운데 대표적인 소설가로는 김창걸, 시인은 리옥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창걸은 해방 후 재중 조선인 소설의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맡게 되는데, 조선의용군 선전대의 문예활동과 그 핵심들이 점차 문단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연변과 목단강 지역 및 기타 지방에서 활동하던 문인들이 이에 가세한다.

해방 후, 중국공산당 조직과 행정 부서들이 연길에 터를 잡으면서, 연길은 서서히 용정을 대체하여 연변의 중심지로 부상한다. 또한 중국 특히 동북지방 각지에서 활동하던 문인들은 모여들기 시작, 연길은 연변 문단의 중심으로 떠오른다. 1949년 중국 건국 전야, 조선의용군으로 연안에서 활동하던 최채·고철, 조선의용군 3지대의 임효원·백호연, 목단강·하얼빈 등지의 김례삼·리홍규·최현숙 등 수많은 문인들이 연길에 들어온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조선의용군 1지대의 백남표, 해방 후 귀국했다가 중국 건국 후 돌아온 김학철·최정연·주선우·정길운 등이 연길에서 자리를 잡는데, 이들은 이전부터 연변에서 창작활동에 몰두해온 리옥·김창걸·채택룡·설인·김창석 등 문인들과 역사적인 회합을 이룬다. 이 시기 조선인 문단을 살펴보면, 소설가로는 김창걸·김학철·김동구·리홍규·백호연(목일성)·리근전·최현숙·마상욱, 시인으로 리옥·주선우·임효원·김례삼·설인, 극작가로는 최정연·황봉룡·홍성도, 민간문학가로는 정길운 등이 있다. 이밖에 문단에서 지도적 역할을 한 문인으로는 최채·배극·현남극·김순기·임호(임효원) 등이 있다. 특히, 김창걸과 김학철은 해방 후 조선인 소설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며, 이후 중국조선족 소설계의 대표적인 작가로 부상한다.<sup>27)</sup>

27) 이에 대해서는 정덕준리광일, 앞의 글, 7-9면 참조.

김창걸은 해방 전부터 공산당 조직에서 활동하던 작가이다. 그는 1943년 절필한 후 1950년 『연변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새로운 마을」을 발표할 때까지 긴 공백기를 보낸다. 김학철은 해방 직후 자신의 항일 무장투쟁을 소설화한 작품을 발표하는데, 이 시기 그의 대표작으로 「이렇게 싸웠다」(『한성시보』 4호, 1945.10) 「지네」(『주보건설』 3호, 1945.4) 「남강도일」(『조선주보』 7호, 1946.1) 「균열」(『신문학』 창간호, 1946.4) 「상흔」(『상아탑』 6호, 1946.5) 「달걀」(『민성』 7호, 1946.6) 「밤에 잡은 포로」(『신천지』 5호, 1946.6) 「담배국」(『문학』 창간호, 1946.7) 등이 있다. 「균열」은 조선의용군의 투사적 삶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는 평을 받는 작품으로, 다분히 도식적이긴 하지만 민족 해방을 위해 온 몸을 바치는 열정과 의지, 갈등하고 화해하는 조선의용군들의 구체적인 생활상이 진솔하게 드러나 있다.

해방 이후 중국 건국 전까지의 재중 조선인 소설은 새로운 사회·역사적 환경에 놓인 이주 조선인의 삶을 조명하고 미래에의 전망을 내보이는 한편, 새로운 문학 이념을 바탕으로 한 문학적 독자성을 형성하면서 전개된다. 그러나 이 시기 소설은, 김학철이 고백한 것처럼, “작품성이 전혀 없는 선전용 글”에 가깝다는 점이 한계를 드러내는데, 이 한계는 중국 건국 이후 중국조선족 소설문단이 나아가야 할 지평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 VI. 결 어

일제강점기 재중 조선인 소설은 이주 조선인이 처해 있던 사회·역사적인 상황과 전망을 담아 보이는데, 각 시기마다 서로 다른 주제적 특성을 드러낸다.

1910년대 이주 초기의 소설들은 민족주의와 자주 독립을 강조

하는 계몽문학의 성격이 짙으며 민족문학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와는 달리, 1920년대의 소설, 특히 최서해·한설야 등의 작품들은 이주 조선인들이 중국 지주와의 갈등과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정착에 실패하고 마는 비극적인 실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한편, 계급의식을 통한 저항의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930-40년대는 발표 지면이 확대되고 본격적인 문단 활동이 전개된 시기로, 안수길·강경애·김창걸·현경준 등 많은 작가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이주 조선인 사회의 각양을 반영하면서 조선인 소설의 지평을 심화 확대해나간다. 이들의 소설은 계급의식에 눈 뜨고 적극적으로 항일 운동에 투신한 이주민의 투쟁사를 다루거나, 초기 이주민들의 수난사와 정착 의지를 꺾진하게 드러내는 한편, 전망 부재의 암울한 현실에서 연유하는 이주 조선인 사회의 병리현상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방 이후 중국 건국 이전까지의 재중 조선인 소설은 이주 조선인 사회와 그들의 현실 대응태도를 비판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조선의용군들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수난 극복의지를 진솔하게 내보인다.

주제어 : 재중 조선인 소설, 이주소설, 정착사, 민족문학, 사실주의

### <참고 문헌>

고승제, 『한국이민사연구』, 장문각, 1973.

권철·조성일(주편), 『중국조선족문학사』, 연변인민출판사, 1990.

권철·임범송(주편), 『조선족문학연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9.

김중호, 「일제 강점기 만주 유이민 소설연구」, 경북대 박사학위 논문, 1995.

- 문학사와 비평학회(편), 『최서해문학의 재조명』, 국학자료원, 2002.
- 민현기, 『한국근대소설과 민족의 현실』, 문학과 지성사, 1998.
- 서경석, 『한설야-정치적 죽음과 문학적 삶』, 건국대 출판부, 1996.
-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1945)』, 아세아문화사, 1999.
- 오양호, 『한국문학과 간도』, 문예출판사, 1988.
- 윤운진, 「중국조선인 문학연구에 나서는 몇 가지 문제」, 『문학과 예술』, 1993. 6.
- 이상경, 「간도체험의 정신사」, 『작가연구』 2, 새미, 1996.
- 이상갑, 『한국문학과 시대의 상상력』, 월인, 2003.
- 장석홍, 『한설야 소설 연구』, 박이정, 1997.
- 장춘식, 『해방 전 조선족이민소설연구』, 북경 민족출판사, 2004.
- 정덕준·리광일, 「중국조선족 소설 연구」, 『성곡논총』 31집, 2002.
- 조성일·권철 주편, 『중국조선족문학사』, 연변인민출판사, 1990.
- 최경호, 『실향시대의 민족문학』, 형설출판사, 1994.
- 채 훈, 『일제강점기 재만 한국문학연구』, 깊은샘, 1990.

K C I

[Abstract]

A study of the Chinese–Korean Novels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Chung, Duk-Joon·Jung, Hyun-sook

This thesis intends to look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 of Chinese–Korean Novels under the Japanese colony and to examine the literary historical meaning of them.

The novels of 1910's had the characteristic of illuminational literature, which emphasis national consciousness and independence, and that of national literature. The representative writers are Shin Chae-Ho and Gi-Wol. The novels of 1920's described settlers' conflict with Chinese landowner and their poverty and suffering because of the Japanese colony rule in China likewise in their homeland. The representative writers are Choi Seo-Hae and Han Seol-Ya and Joo Yo-Han. The novels from 1930 to 1940's described various lives of settlers : an anti-Japanese struggle, a will of settle, and escapism. The representative writers are Kang Kyoung-Ae and An Soo-Kil and Hyun Kyung-Joon. The novels from 1945 to 1949 described an anti-Japanese movement in the period under the Japanese rule. The representative writers are Kim Hak-Cheol and Kim Chang-Geol.